

‘갈매기’ 연출한 이순재 “원작 그대로…꾸밈없는 연기가 핵심”

연출 겸 배우로…연극 ‘갈매기’, 지난 21일 개막
소유진·오만석·진지희·주호성·김수로 출연

“연극 ‘갈매기’는 사실주의 교본이에요. 배우의 연기도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작가의 의도와 사상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죠.”

원로 배우 이순재가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를 연출한다. 아흔을 앞두고 있는 그의 66년 연기 인생에서 오랜 버킷리스트였던 안톤 체호프 작품 연출의 꿈을 이루는 무대다.

이순재는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체호프의 작품은 정치, 경제, 문화, 의학, 지리 등을 다 꿰뚫는 작가의 해박한 지식 속에 나온 산물”이라며 “그의 원작 그대로를 담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능을 인정받고 싶은 작가 지망생 ‘프레블레프’는 자신의 연인이자 배우 지망생 ‘나나’를 앞세워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선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이자 유명 배우인 ‘아르카지나’와 그녀의 연인이자 유명 작가인 ‘프리고린’ 앞에서 관습의 벽에 부딪히며 참패를 맞는다. 게다가 나나는 프리고린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프레블레프는 자신도 곧 이렇게 될 거라며 그녀에게 죽은 갈매기

를 바친다.

이순재는 “작품 속 갈매기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없다. 두 젊은이의 원대한 꿈은 기성세대에 의해 좌절하게 된다. 당시 체제 안에서 젊은이의 미래가 없다는 게 체호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시대의 사회 상황을 반영한 작품이다. 체호프가 느꼈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귀족사회의 붕괴 등 사회 개혁을 주장한다”며 “고전 작품은 시대와 나라를 초월한다. 현 사회적 상황과 결부했을 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인 배우들에게 힘을 실었다. 앞서 이 작품의 상징성을 제대로 표현해보고 싶으며, 배우들의 연기가 살아야 관객들에게 참맛이 전달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라며 “배우들이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야 작품에 담긴 철학과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배우의 연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 사명감을 갖고 연습했다”고 말했다.

이순재의 연출 소식에 후배 배우들은 한 달음에 달려왔다. 이한나, 소유진, 오만석, 진

지희, 정동화, 주호성, 김수로, 강성진, 이경실, 고수희 등 무대와 방송을 오가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주호성은 “이순재 선배님은 작품의 큰 틀을 맡아주되, 인물의 구체적 성격 창조는 배우의 예술로 남겨줬다”며 “흔히 좋은 연극은 앙상블이 좋다고 한다. 배우들 모두 이순재 선배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늘 하면서 단합했다. 좋은 앙상블을 보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18년 전 연극 ‘갈매기’에 출연한 적 있는 오만석은 “그때는 체제를 뒤엎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드레블레프였고, 지금은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프리고린을 하게 됐다. 공통점은 좋은 작품은 곱씹을수록 향이 난다는 거다. 자꾸 찾게 되는 걸 보면 좋은 작품이란 걸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극 ‘리어왕’에 이순재와 함께 출연했던 소유진도 “고전을 좋아하는데, 그보다 이순재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갈매기’는 자석처럼 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첫 연극에 도전하는 진지희는 “너무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고 있다. 무대에서 서로 눈빛만 봐도 의지가 된다. 선생님,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1일 막을 올린 ‘갈매기’는 내년 2월5일까지 유니버설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방탄소년단, 캐럴 공세에도 美 빌보드 역주행...27주 연속 차트인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 전주 대비 15계단 상승...95위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현지 팝스타와 캐럴 음반의 역주행 가운데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장기집권 중이다.

20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12월 24일 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는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전주 대비 15계단 오른 95위에 자리하며 27주 연속 차트인했다.

또 ‘프루프’는 발매 이후 줄곧 이름을 올린 ‘월드앨범’에서 3계단 상승하며 1위에 자리했다.

방탄소년단은 개별 활동으로도 선전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가장 참여한 ‘드림러스(Dreamers)’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3위로 반등하며 4주 연속 차트인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주제곡인 이 노래는 월드컵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제주목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곡은 ‘글로벌(미국 제외)’ 30위, ‘팝송’ 39위에 올랐다.

지난 2일 발매된 RM의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Indigo)’는 ‘월드 앨범’ 4위에 자리했다. 앨범의 타이틀곡 ‘들꽃놀이’(with 조유진)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2위, ‘글로벌(미국 제외)’ 126위에 랭크됐다. 지난 13일 입대한 진의 첫 솔로 싱글 ‘디 애스트로넛(The Astronaut)’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4위로 7주 연속 차트인했다.

영화로 다시 만나는 강수연...유작 ‘정이’

연상호 새 영화 ‘정이’ 내달 공개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의 유작인 ‘정이’가 내달 1월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내년 1월20일 연상호 감독의 새

영화 ‘정이’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 작품은 기후 변화로 폐허가 된 지구가 배경인 SF 물이다. 지구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쉼터라는 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설의 용병 ‘정이’의 뇌를 복제한 인공지능 전투 용병이 탄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김현주가 정이를, 강수연은 정이의 뇌를 복제하고 전투력을 테스트하는 연구소 팀장 ‘서현’을 연기했다. 이와 함께 류경수는 정이 뇌 복제를 어떻게든 성공시키려는 연구소장 ‘상훈’을 맡았다.

넷플릭스는 이날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함께 공개했다.

포스터엔 “크로노이드사의 AI. 전투 용병 정이가 곧 출시된다”는 광고 문구와 함께 로봇 정이의 모습이 담겼다. 예고편엔 AI 로봇으로 살아난 정이와 정이의 전투 장면이 짧게 그려진다.

한편 강수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던 뒤 별세했다.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방심위에 민원 접수 폭주



MBC 예능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서 불거진 새아빠의 의붓딸 신체 접촉 논란에 대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결혼지옥’ 다시보기 삭제

오전까지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20회(12월19일 방송)에 대한 민원이 2900여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안전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7세 딸 양육으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등장했다. 사연자 남편이 7살의 의붓딸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의붓딸은 “나 달라. 삼촌 싫어”라며 거절 의사를 계속 표현했지만 남편은 아이의 엉덩이를 찌르거나 포옹했다. 남편은 애정 표현이라고

주장했고, 아내의 만류에도 남편의 애정행각은 계속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유난히 촉각이 예민한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은 뽀뽀하는 것도 싫어한다”며 “엉덩이는 친부라고 해도 조심해야 하는 부위다. 새 아빠인 경우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 등에는 해당 장면에 대한 ‘아동 성추행’이라는 비판과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MBC는 논란이 된 장면을 VOD 다시보기에서 삭제했다.

송가인, 전국투어 대장정 마침표

가수 송가인이 전국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1일 포켓돌스튜디오 측에 따르면, 송가인은 지난 18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개최한 ‘2022 전국투어 연가’ 서울 앵콜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7개월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2022 전국투어 연가’ 첫 콘서트를 펼친 송가인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일산, 부산, 수원, 천안, 광주 등 총 22회 공연을 열었다. 송가인은 공연마다 게스트 없이 홀로 20곡 넘게 소화했다. 송가인은 대표곡 ‘가인인 어라’부터 ‘오늘같이 좋은 날’ ‘물음표’ ‘밤자에



서 ‘엄마아리랑’을 열창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한류 퀸’ 카라, 日서 ‘무브 어게인’ 발매

그들 카라(KARA)가 일본에서 완전체 활동을 이어 간다.

21일 소속사 DSP미디어에 따르면, 카라는 이날 데뷔 15주년 기념 일본 앨범 ‘무브 어게인(MOVE AGAIN)’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일본 정규 5집 ‘걸스 스토리(Girl's Story)’ 이후 약 7년 6개월 만이다. 타이틀곡 ‘웬 아이 무브(WHEN I MOVE)’ 일본어 버전과 일본 오리지널 신곡 ‘퀸즈(Queens)’를 포함해 6곡이 실린다.

지난 7일 선공개된 ‘웬 아이 무브’ 일본어 버전 뮤직비디오는 일본 라인뮤직 뮤직비디오 톱 100 실시간 차트 정상에 이름을 올렸다.

카라는 일본 컴백에 이어 현지 프로모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 울트



라 슈퍼 라이브 2022’, 27일 니혼TV ‘숫키리’, 28일 니혼TV ‘뮤직 어워드 2022’, 31일 TBS ‘CDTV 라이브! 라이브!’ 연말 특집과 후지TV 예능 ‘런 포 머니(run for money)’에도 특별 출연한다.